

[실무수습 후기-DLA Piper]

가지 않은 길; 도전이 기회를 만든다.

김 예 지

-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재학 중



I. 프롤로그

아마 DLA Piper라는 이름조차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의 발효로 현재 19개 정도의 영미 로펌들이 '외국법자문사 사무소-Foreign Legal Consultant-(이하 사무소)'의 자격으로 한국에 진출해 있는데, DLA Piper는 그 중 하나인 영국계 로펌입니다. 한국 법률시장에서는 아직 생소한 분야이지만 인턴 수행을 하면서 분명 발전 가능성과 매력이 넘치는 분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1달간 이곳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인턴을 선발한 것이라 저조차도 처음엔 업무가 생소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같은 목표를 가지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II. 어떻게 준비하는가?

1. 영 어

‘변호사 자격증 이외에 너만의 +@를 찾아라.’는 조언을 선배들에게 많이 들어왔고, 저는 외국어를 저의 강점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학기 영어 과목을 한 과목씩 꼭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영문 법률용어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도 인턴 업무에 도움이 되었지만, 특히 케이스브리프, 메모 랜덤, 답변서 등을 쓰는 법을 배우는 ‘Legal English’라는 영문법문서 작성 수업이 실제 업무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에는 아침에 영어 학원을 다녔었고, 2학년 때에는 로스쿨 상사법학회원들과 함께 법률영어 스터디를 1주일에 1시간씩 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반적인 영어실력을 늘리겠다는 생각보단 법률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업무가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서면의 99%가 영문이기 때문에 법률용어들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디든 인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인영어성적은 필요하기 때문에, 1학년 겨울방학 때 단기간이라도 공부를 해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고, 토익과 토익스피킹 성적이 같이 있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영문 이력서와 커버레터, 영어 인터뷰 준비는 짬짬이 해두어야 학업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법무와 관련된 직군에서는 필연적으로 영어실력이 요구되니,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법적 지식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여전히 현민형 3법에서 헤매고 있던 상태여서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생각에 불안했을 뿐만 아니라, 예비 변호사 자격으로 인턴을 나가면서 법률지식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스스로 부끄럽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들께서 저희가 인턴이라는 사실을 늘 주지하시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리서치 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큰 장애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법 사무소이다 보니 한국법보단 영미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사건이 많아, 법률적인 쟁점들은 대부분 변호사님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 서면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주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한국법적 이론 지식이 있었다라면 일이 더욱 흥미롭고 이해도가 빨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특허법, 해상법, 자본시장법, 조세법 등이 연관되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러한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관련 과목 수업을 듣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후에 커리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Ⅲ. 무엇을 배웠는가?

1. 업무 전반

인턴들이 사무소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미팅에 참석하고 사건을 열람, 보조수행할 수 있도록(shadowing) 해주신 덕분에 외국 DLA Piper와의 화상회의, 한국의 타 로펌과의 유선회의, 클라이언트 면담 등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합작투자(Joint Venture), 해외 플랜트 설립 계약, 해외 기관 설립 자문 및 의견서(Proposal) 작성, 준법지원(compliance) 등 다양한 업무를 보조수행 하였습니다. 이것은 로펌의 업무구조와 변호사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저를 고무시키기에도 충분하였습니다.

인턴들에게 검토보고서나 의견서 작성과 같은 과제를 일정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요하는 형태의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모두 제공해주시면 저희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미팅에 참석하거나, 필요한 관련판례 리서치나 요약자료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보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제안서와 답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나 궁금한 점들은 변호사님께 여쭙어보기도 하면서 배워나갔습니다. 유선회의 중간에 급히 리서치 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사무실을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리서치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곤 하였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촌각을 다투는 일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턴들 공동과제와 개별적으로 연구해야할 주제를 한 가지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공동과제는 자동차회사의 Compliance 자료를 공부하는 것이었고, 개별과제는 <한-미 FTA의 자동차부품 규제>라는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Compliance같은 경우, 그 자동차회사의 각국 compliance를 비교해가며 보는 것이었는데, 함께한 인턴 동기와 함께 다른 부분을 찾아가며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FTA 또한 실무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한국에서도 특허법, 수출입관련법 분쟁도 많은 분야이다 보니 연구 과정이 재미있었고, 이 또한

저의 향후 진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DLA Piper에서는 인턴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학업, 연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셔서, 인턴으로서 '뭔가 대단한 기여를 했다.'라는 성취감 보다는 '나 자신을 이곳에서 더욱 다듬어간다.'는 생각으로 인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2. 인턴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 - research

인턴으로서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서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나 법령 등 법률적 리서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관계와 관련된 리서치는 대부분 일반적인 정보를 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서치 능력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M&A에 대한 자문을 맡은 경우, 먼저 인수회사와 그 상대회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님께서 "XX회사에 대해 리서치 해보라."고 지시를 주시면, XX회사의 공식 사이트, 신문기사 등등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사안에 필요한 정보들만 문서로 정리하여 신속하게 보내드려야 합니다. 어느 날 해외에 줄기세포센터를 건립하는 사안을 보내주시면서, "관련 주요 판례를 정리해보라."고 지시를 주셨는데, 30분 내로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처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려면 웨스트로, 렉시스 등 외국 판례와 법령을 찾는 사이트 등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덧붙여 신속하고 깔끔한 문서작성능력도 필요합니다. 컴퓨터 문서작성에 능숙하지 못한 저와는 달리 동기는 문서를 잘 만들어서,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옆에서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3.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능력 - 전문성과 경청

DLA Piper 서울에서는 제가 인턴을 할 당시 대표 이원조 미국변호사님을 중심으로 3분의 변호사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경력이 우수하신 변호사님들 가까이에서 일을 보고 배우며, 그분들께 직접 조언을 들은 것들은 제 앞으로의 변호사 직업 생활에 두고두고 큰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능력으로는 단연 '전문성'이라며 그 어떤 것보다 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최우선임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갖춰야 할 자세로는 다른 아닌 '경청'을 강조하시며,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사안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에서나 업무를 하실

때 변호사님들의 질문이나 코멘트가 굉장히 날카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부지런히 메모를 하신 후 논의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잘 듣고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결국은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IV. 무엇을 느꼈는가?

1. Passion

좋아서 시작한 일도 시간이 흘러 익숙해지면 처음의 설렘은 사그라지고 습관이 되기 마련이라, 자신의 일에 오래도록 열정을 갖고 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조 대표변호사님과 이성훈 변호사님께서서는 DLA Piper로 온 것을 '모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계속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업무범위(work scope)를 넓혀나가야 한다는 말씀에서 직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전에 출근하시고 밤늦게까지 힘든 내색이나 흐트러짐 없이 일에 몰두하시는 모습은, 사회 초년생인 저희에게 직업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2. Perspective

한글로 정확히 설명할만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관(觀)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인턴 기회를 통해 저의 직업관과 인간관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관과 관련하여, 뚜렷한 목표 없이 막연한 꿈만 있었던 저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직업의식을 키워준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기업법무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남들보다 조금 더한 정의감 때문에, 언제나 약자 편에 서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법무 일을 접하면서, 국제적 거래관계에서 한국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것 또한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양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던 타인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기업법무나 FTA 분야로도 진로를 모색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저의 직업관을 다시 한

번 다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변호사 업무는 송무와 법률자문, 취직은 로펌이나 공공기관”이라는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보니 변호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직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 속에서 성장한다.”는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몸소 체험하면서 저의 편협했던 인간관에 대해 다시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개과천선’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김명민이 표독스럽고 까칠한 파트너 변호사 역을 맡고, 인턴을 하는 동기 로스쿨생들은 서로 경쟁하고 깎아내리기 바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님들께서는 항상 인턴들에게도 편안하고 부드러우셨고, 가끔 재미있기까지 하셨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심으로써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인턴 동기도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하며 인턴기간동안 즐겁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변호사로 성장하면서 업무에 있어서는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고, 인품을 잘 다듬어 제가 속한 집단에서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V. 에필로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를 읽어보셨는지요? 에벌레들이 ‘저 위엔 대단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란 큰 기대를 품고 쉬지 않고 꽃줄기를 올라가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한치 앞만 보며 줄기를 올라가는 동안 에벌레는 변태를 하여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로, 그 여정에서 겪는 경쟁과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인턴이 2주 이내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부담이 되어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인턴을 하고 난 후, 인턴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하루하루 그저 한치 앞만 보며 무념무상으로 줄기를 올라가는 에벌레처럼 지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턴은 그랬던 저에게,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날개를 달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한 경험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저와 방향을 같이하는 많은 동기, 후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턴의 기회와 더불어 많은 가르침을 주신 DLA Piper 서울 사무소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저의 줄고를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글을 마칩니다.